

다문화포럼 3

다문화, 함께 사는 세상을 열며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자료집 10

- 일시 : 2017. 11. 3.(금) 오후 2시
- 장소 :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1층 세미나실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글로벌디아코니아
GLOBAL DIAKONIA

일 정 표

13:30 ~ 14:00 등록 및 자료 배부

사 회 : 김 성 태 사무총장

14:00 ~ 14:20 개회선언 사 회 자

인 사 말 김 종 생 목사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서무이사 / 온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참석자소개

14:20 ~ 15:30 기조발표 및 토론

15:30 ~ 16:00 질의 응답

16:00 폐회

목 차

1. 기조발표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9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토 론

1) 사 회 : 성종숙 소장 (유니게의 집)

2) 토론 1	37
정혜원 교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3) 토론 2	41
함동현(캄보디아남편)	

3. 부록	53
-------------	----

인 사 말

경제와 종교의 영역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편견에 노출되며, 배제되고, 무시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사회의 선주민과 소통하고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과 태도로 이주민을 대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이들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혹은 지역교회는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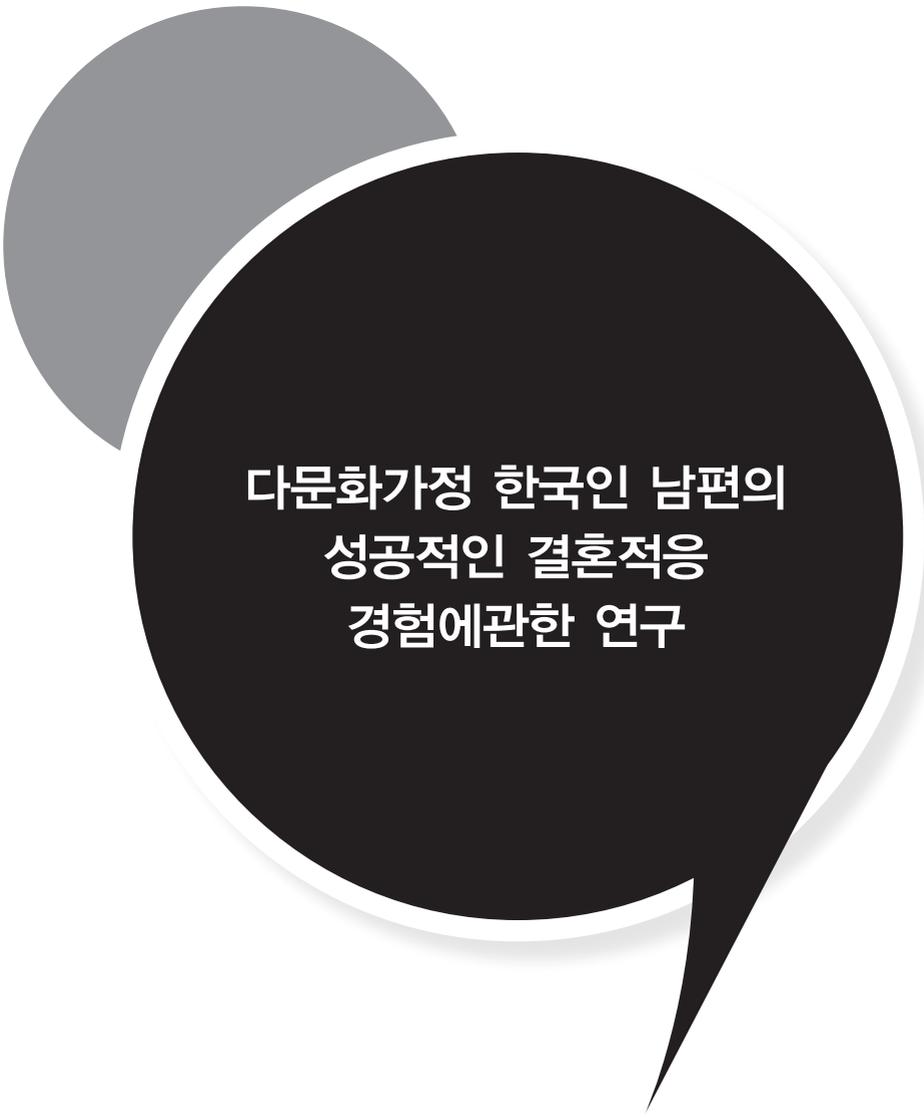
다문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꽃 피우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이사장 김삼환 목사)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과제를 실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행복시대- 다문화, 함께 사는 세상을 열며’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다문화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갖는 2017년도 다문화포럼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를 임원선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의 기초발제와 논찬으로 정혜원교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와 함동현님(캄보디아인 남편/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토론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노력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모두 익숙해져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포럼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성태사무총장과 성종숙소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추워지는 계절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김삼환 목사(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 이사장)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들어가는 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에 이르기까지 4년간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자로 낙인(stigma)이 찍혀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도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돕는 이웃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중언어강사과정, 자조집단, 레인보우봉사단, 취창업과정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2016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FGI를 통해서 “탈가정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실태와 대안모색”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 후속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의 생활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본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의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관점에서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10월부터 11월 2개월간 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남편을 추천 받아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에 따라 심층면접을 진행 하였고, 총 7명의 한국인 남편의 심층면접 자료를 영역별 범주화(categorizing)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번호	구분	나이	아내 출신국	결혼기간	결혼경력	자녀수	본인직업	아내 직업	종교	결혼 과정 (경로)
1	참여자 A	51살	베트남 (한국국적 취득)	11년	초혼 13살 차이	1남 1녀	컴퓨터 관련 일(매장)	공장 (고졸)	무교	업체를 통해
2	참여자 B	49살	캄보디아 (한국국적 취득)	8년	재혼 16살 차이	1남	우유대리 점	가정 주부 (대졸)	기독교	지인을 통해
3	참여자 C	53살	중국 (한국국적 취득)	12년	초혼 13살 정도	1남 3녀	전문직종 직업연계	가정 주부	무교	연애결혼 (회사에서 지사발령)
4	참여자 D	48살	베트남 (한국국적 취득)	9년	초혼 19살 차이	2남	일반회사	가정 주부 (초졸)	천주교	업체를 통해
5	참여자 E	36살	태국 (태국)	2년 반	초혼 9살 차이	1남	병원 관련 전문직	가정 주부 (대학 졸업)	무교	연애결혼 (유학 온 대학생)
6	참여자 F	45살	중국 (한국국적 취득)	10년	초혼 10살 정도	2녀	버스기사	주부 (초졸)	불교	친척 소개로 (중매결혼)
7	참여자 G	46살	캄보디아 (한국국적 취득)	3년	초혼 16살 차이	2녀	공무원	주부 (중졸)	무교	업체를 통해

I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또는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의 새로운 개념이다. 즉, 가족 구성원 간에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하면서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동인 ‘혼혈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주며 차별적으로 대해 왔다. 이렇듯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 가정(족)’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족)’ 또는 다문화가정(족) 2세’로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는 국제결혼은 세계화에 따라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혼인 적령기를 놓친 농촌 지역의 미혼 남성 위주로 국제결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 시장에서의 성별 불균형에 더해 독신이나 만혼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신부감 부족현상은 도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의 국제결혼 비율도 늘어났다[25].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세 단계를 거쳐 확산되었는데 1990년대 초 중국과 수교 이후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행사’의 일환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한 것이 첫 단계이며, 일본과 필리핀, 한족 등 특정 종교의 신도로,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26]. 이처럼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된 원초적 동기는 우리나라 남녀의 혼인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활동 증가가 도시인구 집중과 맞물려 농촌남성과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한 결혼수급의 불균형이라 하겠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전체혼인 건수에서 국제 결혼률은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라 하겠다. 즉 공통된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영어사용이 가능한 필리핀 국적의 아내보다 우리 사회에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태국 국적의 아내들과의 의사소통곤란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결혼 이전에 경험했던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상호간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특히 중개업소나 종교단체가 개입되면서 결혼과정도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혼과정 또한 매우 급박하게 이뤄짐으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 습득은 물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27]. 셋째, 경제적 빈곤이다. 결혼이주여성 대다수의 결혼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하지만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맞물려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들을 시초로 대부분 소득수준이나 직종에 있어 결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0.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이 23.8%,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6.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 437만원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정이 경험하는 육아 및 자녀교육에서 겪는

곤란은 위에 언급된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다[29][30]. 이와 같은 특징으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맺어진 가정과는 다른 어려움과 곤란으로 결혼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결혼적응(한국인 남편의 결혼 적응)

결혼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으로 살아온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인생의 주기에서 서로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복잡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어려운 생활사건이다[1]. 적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체가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과 개인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이 먼저 서로 간 적응을 하며 동시에 부부가 속한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이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결혼적응은 결혼성공, 결혼만족, 결혼행복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며[2] 부부적응이라고도 한다[3]. 결혼적응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 과정으로 결혼생활의 여러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또는 정도를 말하며[4] 또한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갈등을 부부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부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한다[5]. 결혼적응은 결혼의 질, 결혼 성공성, 결혼 성공, 결혼 만족도 등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데 결혼적응 수준이 높으면 결혼의 질 수준이 높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수준의 결혼행복감과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 특히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에는 의사소통, 가치관, 개인특성, 가족특성, 문화적응 태도, 사회적 편견, 성역할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5].

그동안 결혼적응에 대한 연구 대상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분리화와 성불평등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결혼생활에서의 결혼불만족, 갈등, 결혼부적응 등의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6]. 다문화가정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폭력이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더 많이 직면하는 관계로 여성중심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7].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기에 결합의 순간부터 문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둘째,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셋째, 가부장적 가족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의 부재라 하였다. 반면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학력이 낮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 결혼을 매매혼적으로 간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부

장적 문화와 생활방식을 강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이혼 심지어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해자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 남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들도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장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최지영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의 의미를 ‘결혼: 시원섭섭함’,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이해와 오해’, ‘정보와 도움의 부족: 산 넘어 산’, ‘변화와 극복: 그래도 희망을 바라봄’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엄명용은 한국인 남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그동안 주변화 되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재탄생하는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과정을 연구한 이호준은 결혼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신과 출산, 처가방문, 언론보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임을 밝혔으며, 공수연·양성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에서 이들은 결합, 혼돈과 적응의 시기를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은 적극적인 태도, 문화차이 인정하기, 조율하기, 효율적인 역할분담하기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권력분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그리고 주도성이 조화로운 정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밝혔다[8].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해 연구한 김인선·배화옥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문화적응태도, 가부장적 태도, 아내의 본국 송금에 대한 태도,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혼적응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 태도와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정의정·하규수는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남편을 연구한 임춘희는 한국인 남편들이 재혼을 통해 인생 중반기에 생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았다며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도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자신의 삶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환점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인 남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결혼을 통해 갖게 된 삶의 의미나 변화 혹은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며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데다 5년 이상 된 연구들이다. 특히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이룬 한국인 남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인 남편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떻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적응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혼적응이 개인의 중요한 생애사건인 결혼을 통해 사적으로 이뤄지는 경험이므로 그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질적 연구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9].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1. 결혼 초기부터 적응과정, 2. 자녀양육 또는 집안일 참여정도, 3. 결혼 후 어려웠던 점, 4.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 5.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극복경험), 6.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7.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8.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9. 더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0. 예비부부, 신혼부부 조언, 11. 기타의견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와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근거이론에서 연구결과는 맥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다차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어떤 한 맥락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 개방코딩의 목적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현상을 발견하고, 특징에 따라 개념을 이름 짓고 그것을 범주화하는 것이다[4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근거된 자료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과 사물, 작용/상호작용을 밝혀내어 이를 추상화하여 범주화 시켜 25개의 범주를 도출시켰다. 연구에 있어 사건과 일어난 일들 사이가 항상 명료하지는 않고 범주들 간의 연결고리가 아주 미묘하고 내재적일 수 있기에 드러나는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 하는데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조직적 도식 중 하나가 패러다임(paradigm) 모형으로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과 같다.

백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 * 제한된 감정표현 * 성격적 특성 * 배우자 본국 송금

인과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안 된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문화와 생활습관 몰이해 - 언어장벽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어려움 * 일상생활 갈등 * 결혼생활 후회

작용/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르치기 * 단편적 대화 * 말 안하기 * 기다리기 * 인정하기 * 배려하기 * 역지사지 * 취미생활 함께 하기 *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 사회자원활용지지 및 참여 * 정기적 외부상담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생활 * 단단한 신뢰관계 * 사회적 바람

중재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 가사참여 *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



1. 결혼 초기부터 적응과정

1) 준비 없이 맞이한 결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가르쳐주고 책도 몇 권 사주고, 도움이 될 만한 그 카세트 같은 거 나름대로 갖다 주고,, 천천히 이야기했다가 한 번 이야기 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목소리 커지고 한 번 더 못 알아들으면 목소리 커지고 목소리 커지면 뭐 나중에 물어봤더니 동남아 쪽이 목소리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목소리가 커지면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G)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음..뭐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문화센터보다 복지관을 보내는 게 집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뭐 그 1336? 거기에 전화하면서 나는 이런 감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G)

2. 자녀 양육 또는 집안일 참여 정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 및 집안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지만 자녀양육과 시부모를 모시며 사는 아내에 감사함을 느끼며 집안일에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상당히 참여합니다. 음식, 설거지 다 잘합니다. 제가,,,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뭐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합니다, (참여자 C)

되려 지금은 좀 덜 하는 것 같구요, 아이 물론 조금씩 알려주는 건 하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하고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애들이 클수록 이제 좀 덜 신경을 쓰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썼죠, 그때는... (참여자 D)

평일은 네, 다섯 시 이후에 왜냐면 어린이집 가니까 같이 저녁에 놀아주고... (참여자 E)

저는 그다지 많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이 만족을 하니까...아이들하고는 자주 놀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집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어찌다 한 번씩 청소해 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 줄 때마다 집사람이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참여자 F)

아침에 바쁠 때에는 저희가 같이 애 씻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그다음에 빨래, 세탁하는거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참여자 G)

3. 결혼 후 어려웠던 점

1) 언어의 장벽 : 서툰 한국말

처음에 말배우기 뭐 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많죠,.. (참여자 B)

처음엔 못했지만 나중에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갖고 적응하는 동안 한국말을 못하니까 모든 한국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여자 C)

2) 속 깊은 감정 전달(감정표현)의 어려움

아무래도 말은 통하는데 이제 뭐 감정표현이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는, 말로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말할 때도, 우리는 말해도 감정의 표현이 들어가는데 애는 감정의 표현을 못 넣는 거라,.. (참여자 A)

한국 사람이나 외국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 장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깊은 대화를 못하는거고 장점은 서로에게 상처 되는 말을 하기 힘들어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 하는게 힘들어요, 이게,..(참여자 E)

서로 얘기하는게 감이 다르다고 하죠? 그게 많죠, 근데 그 차이가 굉장하죠, 대화는 없어요,..그냥 의사소통만 하죠, 개인적인 자기의 그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 생, 생각 그때그때 감정들을 그 교류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안 좋은 얘기에 비유하지만은 마네킹이랑 하는거와 같죠, (참여자 C)

지금은 집에서 생활 하는데는 문제없는데, 이런거 못 알아들죠, 흉부외과가 있는데 흉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외과가 뭔지 모르고,..대화할 때 약간 한계가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참여자 G)

3)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문화가 있고, 여기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쪽에 생각하면 또 제가 말이 안된 경우... 굳이 말한다면 좀 게을러 한다면지, 난 더운 나라가 조금 게으른 건 있나봐요, 정리 정돈 이라든지 뭐 약간 차이가 있죠, (참여자 B)

쉽게 말하면 자기 식구는 어디 아프면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꼭 찾아봐야 되고, 저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안가고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야...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참여자 F)

좀 어이없었을 때는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됐을 때 지금도 태국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얘기도 많고 친구들 만나고 온다,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알았다 하고 다음날 오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어 뭐지? 또 나갔나? 하고 전화 하다가 안 되면 이게 그 뭐야 페이스북 메시지로 통화하곤 하는데 터키?에 가 있는 거예요, 갈 때는 얘기를 하고 가야지 하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뭐 이런 그게 좀 큰 거였고 그 이후로는 뭐... (참여자 E)

4)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고국에 지속적인 송금을 원함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집사람이 이제, 그쪽에 보태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나도 지금 못 보태주는데 집사람도 얼마 아프면 가자하고 이렇게 하는데...(중략)... 그런 거 조금 트러블이 생기고, 한동안은 좀 냉각기 말도 잘 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있으면 지나가고... (참여자 A)

저는 이제 뭐 다달이 10만원씩 보내준다는 등 이런 소리가 많은데 저는 뭐 일 수 짚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달이 10년을 보낸다 라고 하면은 일 년이면 1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보내더라도 그거를 한 번에 딱 보내라...때때로 내가 지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참여자 D)

뭐 나도 내 부모가 먼저 듯이 그쪽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A)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이십 만원 보내줘 봤자... 다른 분들도 물어봤더니 그러

면 당연히 다음에도 줄 것이라고 의지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결혼 연결해주었던 사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에 결혼 할 때 선금을 드려서 저는 송아지를 사주고 올라오려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G)

5) 식생활의 차이

처음에는 한국음식 전혀 못 먹었어요...그런데 지금은 잘먹고... (참여자 A)

약간 식생활에서 차이가 있어요... (참여자 B)

6) 시댁과의 갈등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

저희 어머니하고 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따로 살았고,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그렇게 뭐 힘든 건 없고, 매일 보면 싸우게 되는데 2-3주에 한번 가서 한 두 시간 보니까 서로 맞추더라고요... (참여자 B)

시부모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중개를 하겠죠, 저도 이제 중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서투니까 그 저기 좀 교감이 그 조금 잘 안되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뭐,, 그 싸울 일이 많았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참여자 C)

무슨 말하면 거기다 대고 대꾸도 못하고 이런데 집사람은 거의 대꾸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 뭐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갈등에 대해서 뭐 참다 참다 못하면 나중에,, 많이 울고,, 그래서 뭐 처음 봤을 때도,, 3개월?3-4개월은 10번 넘게 같이 울은거 같아요, 얘기하라고 울고,, 특정한 단어... 캄보디아 이야기만 나오면 아 나 캄보디아 가란 소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다르니까 저도 많이 울고 같이 껴안고도 울고 그러는데... (참여자 G)

그런데 자랑은 그런 과정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랑...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중국사람이니까, 그런 편견 같은거, 있으셔가지고... (참여자 F)

집사람이 많이 참고 했는데... 그냥 안에서 밖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려운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죠,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왔으면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어머님이 그렇게 까지 안하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집사람이 캄보디아 나라에서 왔고 학력도 좀 낮고 그 다음에 피부색깔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어머님이 봤을 때도 약간... (참여자 C)

7)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소한 거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거...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가운데에서 짜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거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소한 걸로... (참여자 G)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제가 챙겨야 되니까,,거기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서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하나부터 열까지 택시 타는거, 지하철 타는거 뭐 어디 뭐 하는거,,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문구자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봐야 돼요,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는 잘 하죠, 근데 현실은 답답하죠, (참여자 C)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적응을 저도 못했어요, 집사람도 못했겠지만 저도 적응을 못하고,, 애는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어떤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뭐 그런거 하고 잘 매치가 안되고 그러니까 힘들었죠, (참여자 C)

8) 자녀 양육의 어려움

(아이들) 첫째, 이제 뭐라 해야 하나, 말부터, 말부터 대부분 늦어요, (참여자 A)

가정통신문 딱 가져오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무슨 단어라는 것을 읽을 줄은 아는데 뭔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물어봐요, (참여자 F)

한국말, 보통 엄마가 안고 키우면 말을 아무래도 이제 늦어요, 늦어도 많이 늦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 제가 가요,, (참여자 A)

4.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

1) 잘했다고 생각한 경험 (주변사람들의 인정)

잘했나 싶을 때는 친구들..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를 들을 때... 바가지.. 그리고 결혼 생활자체를 돈하고 연관 짓지도 않고... 특별히 돈을 달라는 말도 안하고 돈을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바가지는 없어요, (참여자 E)

결혼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가정을 꾸릴 수가 있잖아요,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저희 회사 사람들도 저희 집사람을 잘 알아요, 항상 보면 "야 너 장가 잘 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딴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열심히 배우고, 또 씩씩하고 하니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 F)

저는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결혼식을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연애하는 도중에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여행자로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비자 받고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얘기를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둘, 둘 때까지는 바빠서 못하고 둘 지나고 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또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못..했다고 하면 되게 서운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색도 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언젠가는 해주..해주, 해주겠지 이렇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지, 요런, 서로에 대한 믿음을 느낄 때, (참여자 E)

근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였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참여자 D)

2) 결혼한 것을 후회했던 경험

아니 뭐 애매한건 아니고요, 전 절대로 안합니다, 외국사람하고 앞으로...너무 힘들어요, 그냥 선택한 거니까, 참고 사는데, 다시 결혼한다면 저기 절대로 외국사람하고 안합니다, (참여자 C)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할 때, 그걸 왜 못하게 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그럼 후회가 되죠,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참여자 E)

결혼 후회 했던 거는 진짜 초기에.. 매일 그랬어요, 매일.. 제가 매일 혼자 아..,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화장실 갔을 때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나,

고민을 계속 거의,, 그랬고요, 거의 매일이 그랬어요...(참여자 G)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때죠, (참여자 F)

5.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극복경험)

1) 경제적인 어려움

힘들었는데, 뭐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힘들었죠, 한국에서 와서 사는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융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 하는게 있어가지고 즉각 즉각 그 돈 벌어오는 그런게 아니어서 그 뭐 힘들었죠, (참여자 C)

2) 보수적 성향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50살 넘었으니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때, 그건 모르죠, 일단 뭐 말도 안 통할 때고, 자기 땀에는 여 있는, 혼자 놔두고 그래 늦게 까지 있다, 이런 저거겠죠, (참여자 A)

많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이혼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한 적은 있죠,,,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집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좀 과격해졌어요, 제가,,, (참여자 C)

3) 위기상황 느껴 본적 없음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 뭐 싸울 때 간혹 가다가 외국 그 나라에서는 그러는지 몰라도, 걸핏하면, 나 집나갈 거야, 이런 거,,, (참여자 B)

특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참여자 D)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봤어요, (참여자 F)

6.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고, ... (중략) ... 서로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E)

남편들도 똑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인이 더 한국에 살 때 남편보다 더 강하게 가정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

7.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1)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서로 다름을 인정)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보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자기랑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나라 가면 또 마찬가지로 일 테고, 서서히 변해야지, 그걸 강제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게 되면... (참여자 B)

한국문화에 좀 적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게 많이 있는것 같아요, 저도 뭐 없지 않아 그랬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왔으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생활에 대해 따르라가 아니라... 굳이 그거를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참여자 C)

굳이 꼭 그렇게 내가 맞고 니가 틀리다가 아니라 어~ 다른거네, 생각이 다르네? 과일을 안이 아니라 밖으로도 깎네? 어~ 맞아, 이렇게 보면 내가 다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다치겠다, 제가 받아 들일건 받아들이고... (참여자 G)

넌 너 방식, 난 내 방식, 서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면, 근데 막 여기 한국이다, 한국방식 따라, 싫어 나 얘기 때부터 이거했는데? 이러다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거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국가대 국가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니네 나라 이런데 우리나라 이렇다... (참여자 B)

노력했던 거는 그거죠, 믿어주는 것 밖에 없죠, (참가자 F)

제가 한국 와 가지고 제일 신경 쓴 게 말이 안통하면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다보면, 그래서 우선, 시장이고, 뭐 직장이고 무조건 가가지고 계속 배워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배우고...(참여자 B)

2)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표현

웬만하면 우리 집사람을 맞춰주려고 그러죠, 저 믿고 여기 먼 나라까지 왔는데, 제가 그럼 또 속상할거고, 그렇죠, 웬만하면 제가 양보를 하고, (참여자 F)

이런 부분은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장난이라도 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말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 세 마디...(참여자 G)

이벤트라고 해야 하나? 어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응모 많이 하고 그다음에 .. 에 또 집사람한테도 모든지 하게 하라고...(참여자 G)

뭐 그렇게 좀 숨통은 터줘야겠다고 해서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뭐 이제 집사람이 또 제가 다행인거는 이런 게 행사가 좀 있어서 뭐 부모님 초청하는 행사 뭐든지 인터넷에 나오면 말이 안 통했으니까 제가 다 신청하고 집사람 입장에서 글도 써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한국말로 쓰고 집사람한테는 캄보디아어로 쓰라고 해서 그 부분가지고 번역도 해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뭐 에 그렇게 해서 한번 돼서 부모님 초청해서 오셨거든요, 이번에...(참여자 G)

3) 믿음과 신뢰

저를 믿고 왔으니까 저도 믿어야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믿어주면 그걸로 다 만사형통 인 것 같아요, (참여자 F)

서로 이해해야죠, 양보라기 보다도 이해 하란거죠...(참여자 C)

4) 역지사지(易地思之)

아무래도 먼데서 오니까 말은 안통해서 저도 해줄려고 해도 조금 뭐라 해도, 여자가 움추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참여자 F)

자주, 자주 갔었어요, 자주 데려가고,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때도 동기회 이런 때
도 데려가고 10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안 할 정도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말을 좀 배우고 집(고국)에 전화를 하도록 했어요, (참여자 A)

웬만하면 또 저는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해주는 만큼만 우리 부모님한테 해주길
바래요, 더도 덜도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야! 너 우리 부모님이니까 잘해, 이게 아니에요, 해주는 만큼만 해주면 돼요, 제
신조가 그렇고,,,내가 못하는데 잘해달라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참여자 G)

5) 기다려주며 잘 가르쳐 주기

가르쳐 주고, 하면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참여자 F)

아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니깐요, 회사 일 끝나고 오면 밤 12시 1시까지 컴퓨
터 그거 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랬다니깐요, (참여자 D)

6) 함께 취미생활 하기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즐기고 놀고 이런 거?, 취미생활이 같은 것 (참여자 E)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이 생활하는 거 같아요, 그건 어떤 거 뭐 만들기 있으면 같이 만들
고, 애도 또 어디 뭐 갈 거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러다보면, 다 그 다음에 쓱닥쓱닥 하다보
면, 그러다 보면 말은 안통해도 친근감은 생기잖아... (참여자 B)

7) 함께 노력하기

나도 적응해가지고 나도 변해야 되는데,, 나는 안변하고, 너는 왔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데로 네가 왔으니까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결혼 안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G)

노력을 많이 했죠, 일하고 와서 피곤해도 또 붙들고 앉아가지고 공부 가르쳐 뭐해
그리고 그 컴퓨터 엑셀 이런거 가르쳐 포토샵 있잖아요? 포토샵도 알려주고 오만거
다 알려줬어요, (참여자 D)

8) 적극적인 지원

센터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참석하고, 얼마 전에는 요리 대회도 같이 나가고... (참여자 B)

한국말을 많이 배우라고 제가 그 다문화 센터라든가 한국어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저는 다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집안에 있는 것 보다... 그 사람들 만나고 배우고 하는걸 또 좋아하고 뭐 그런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뭐 권장하고...제가 여기 소개시켜줘서 다니라고 했으니까 집안에서 안 통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배워야죠, 저는 뭐 배우는거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합니다. (참여자 C)

나를 위해서만 하는게 아니라 나랑 집사람이랑 부모님 그리고 애들 그리고 캄보디아 어머니님 식구들 포함해서 다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니가 잘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살고 또 나도 뭐 이렇게 사실 거기 국제 전화는 자주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딱 정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아홉시에 전화하면 거기는 7시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전화를 해요...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지 못하니까 또 다문화 관련해서 행사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 웬만해서 시간 있으면 토요일이면 시간 내서 같이가고... (참여자 G)

9) 정기적인 외부상담으로 즉각적인 문제해결 노력

국제결혼 사무실이 가까워서 저도 이렇게 수시로 가고 또 다른 분들도 수시로 오세요, 무슨 고민 있으면 뭐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우리끼리는 각자 모르는데 회사 사장님이 또 알아서...여기 사장님은 저희가 이제 계속 저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참여자 G)

8.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게 성공케이스다, 그게 다문화가정의 성공케이스다, 이런 거보다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E)

근데 남자가 저처럼 여자도 딱 살 사람이야 저는 오로지 관점이 그런 거였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한국에 살 여자인가, 그리고 이게 저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거를 캐치를 남자가 빨리 해야 되는데... (참여자 D)

9. 더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 결혼하기 전 사전 준비 필요

물론 여자들도 중요하지만, 남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자한테 문화도 접촉 시키고, 한글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한테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아니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참여자 A)

뭐 저도 그래요 뭐 일단 남자가 선택을 했으면은 남자가 먼저 그 나라 문화를 좀 알아야 되고... (참여자 D)

2)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 (정보접근성의 취약성 문제)

저는 도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못 찾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차라리 어떤 예산을 줄여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예산을 더 늘리든지, 뭐 보면 누군 참석하고 누군 참석 못하고 이러면 그것도 불합리한 거죠, 따지고 보자면... (참여자 A)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터나 그런데서 하다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는데, 밴드나, 보통 일반 사람은 진짜 다문화 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항상 오던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가 만든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오는 사람은 뭐 여기도 가면 있어, 저기도 가면 있어, (참여자 B)

근데 주변 다른 분 보면 그 일용직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분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고 (매일 매일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일용직) 어쨌거나 정보를 접할 기회는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 접할 기회는 없죠,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저녁에 늦게 오고 자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죠, (참여자 C)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외국 이주여성들은 참여를 하고 싶겠지만,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거기 가는 거 동의를 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여자 F)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식 변화

제가 볼 땐 근데,,사회적인 인식이 좀 다르죠, 그중에서 이제 좀 강조를 하자면 그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거가 중점이 되는,,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 공간에 못가요, 일상적이지 않죠, (참여자 C)

뭐 제도, 법 ,규율 이런 거 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나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더라도 한번 쳐다보고 강대국의 나라와 약소국의 나라에 대해 차별이,,, (참여자 E)

같은 사람으로 봐요, 세계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 다문화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참여자 E)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나라에 국민소득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평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한국여자가 한국 남자가 영어권에 살아, 백인하고 같이 가면 우러러 보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못하고 영어를 쓰는데 백인은 아니야, 흑인도 아니야, 그러면 우와, 이정도? 영어를 쓰는데 흑인이야,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그냥 비슷하거나 까무잡잡하고 외국 인이고 쳐다보고 약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기본이,, 이 사람이 우리가 가끔 원숭이를 쳐다보듯이 약간 안 좋은 눈빛으로 보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여자 G)

4) 불법적인 결혼중개회사를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장치 필요(거름망)

업체에서는 무작위로 해주죠, 가끔 업체로 결혼하면은 근데 거기서도 또 그러는 게 예를 들면 그게 또 돈 인거예요, ...(중략)...그 거짓말 했을 때에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게 없죠,

(참여자 D)

저는 그런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결혼 이라는 거를 그렇게...그거는 그런 업체들을 예전부터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여자 E)

5) 올바른 자녀양육 위한 부부(부모)교육 필요

특히 부부교육 같은 거는 그거는 좀 많이 해줬으면...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육 받는게 최고 좋아요, 그것 보다 좋은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6)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모색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이주여성 가족을 우선으로 채용 검토

중소기업.. 저기 사장님이 관리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각 나라별로, 거기서 한국어 능력 시험 본 사람 중에 성적순으로 뽑아서 한국 업체에서 나 이사람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서대로 가는 성적순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따로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산에서 100명이 올 때, 30%란 비율을 다문화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문화 가정에서 이미 한국에 와 있고, 서류가 다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뭐..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50명이 했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평하게, 못하면 내년에도 주고 우리도 살기 편하고 그쪽 가정들도 편하거든요, 이런 걸 안해요, 그러면 수입은 확실하잖아요...(참여자 G)

(2) 다문화 가정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제공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금 얘기했지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 챙겨야 될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하는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좀 이게 뭐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사회적으로 좀 약간 약자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공

간들을 뭐 그런 것 들을 많이 마련해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 합니다. (참여자 C)

10. 예비부부, 신혼부부 조언

믿음이 최고 중요하죠, 서로 믿어주고 하면 서로 믿고 의지하면, 또 행복할 것이
고, 어느 누가 와도 믿음은 못 깰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여자 F)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안하는 게 좋
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내가 한국에 지금 생활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뭘 하
고 있고 별이가 얼마나 되고, 내가 누구랑 살아야 하고 솔직히 처음에 회사한테 정
확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 회사도 여자한테도 정확히 이야기 하고,, (참여자 G)

만약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나
라, 그 꼭 국제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라던가 또 어느 나라를 하고 싶다면
면, 그 나라에 대해 좀 알아보고, 그 나라 문화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준비
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 G)

* 기타의견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손대면 안 되죠, 그거 같이 우리나라사람도 마찬
가지지만 뭐 손대면 저거 하듯이 손대면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거 하나는 끝
까지 지켜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맞아가면서 누가 살라
고 하겠어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걱정하고 오더라도 내
가, 내가 제대로 하면 그 중에 뭐 10명 중에 2-3명은 남아 있을거라고,, 살라고
왔는 사람을 손찌검한다하면 있겠어요? 처음에 손찌검 안하겠지, 그런데 좀 지나보
면 좀 막 말 안통하지 뭐 하라 해도 제대로 하지도 안하지 먹는 것도 제대로 뭐
뭐 못하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히다 보면, 뭐라 해도 욕하는, 말은
안통하지 이러면 욕하면 뭐 손부터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살라고 온 사람도
살겠습니까? 안 살지,, (참여자 A)

돈, 그 돈 값을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내가 이만큼 들여가지고 천오
백 이천 들여 가지고 널 했는데, 네가 돈 값을 하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 있다고요, 그게 문제 라요, (참여자 A)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1. 결혼 초기부터 적응과정, 2. 자녀양육 또는 집안일 참여정도, 3. 결혼 후 어려웠던 점, 4.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 5.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극복경험), 6.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7.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8.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9. 더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0. 예비부부, 신혼부부 조언, 11. 기타의견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적 제언과 사회복지실천적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적 제언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의 제언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준비로서 배우자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이해, 결혼정보회사의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불법결혼중매업자 근절 등이 요구된다.

둘째, 부부관계개선 지원으로서 언어장벽개선, 부부교육, 부모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안정 지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선 채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공사례 즉,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실천적 제언

사회복지실천적 차원의 제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참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적 차원의 서비스로서 가부장적 사고를 지양하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배려, 믿음과 신뢰, 역지사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동차원의 서비스로서 남편들은 가사분담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녀양육, 언어 가르

쳐주기,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세탁, 분리수거, 외부프로그램 적극적 참여지원, 함께 노력하고 함께 취미생활하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셋째, 정서적 차원의 서비스로서 고마움 표현하기, 문제해결노력, 정기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여 배포하면 보다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안영미,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 송지현,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 안진경,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 Spanier, "The measurement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5, No.3, pp.288-300, 1979.
- [5] 김봉주,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6] 이영숙, 박경란,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75-286, 2009.
- [7] 박재규, "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16권, 제2호, pp.427-442, 2006.
- [8] 공수연, 양성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01-117. 2011.
- [9] 구차순, 박순자, "국제결혼 남성의 결혼해체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45-74, 2012.

토론 I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
연구에 대한 토론

정혜원 교수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경험 연구에 대한 토론

정혜원 교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I.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세계적 추세와 함께 결혼 적령기의 성비 불균형과 1990년대 초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서서히 늘기 시작하여 2004년 이후부터는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국제 결혼률이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혼 또한 증가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이혼한 다문화 가정은 11,287건으로 그해 결혼 건수인 22,462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혼을 급등이라는 현실은 다문화 가정에 있어 부부간 갈등과 적응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결혼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한국인 남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통해 생활상의 특징을 밝혀낸 발표자의 논문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II. 연구결과

발표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룬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생활을 1. 결혼 초기부터 적응과정, 2. 자녀양육 또는 집안일 참여정도, 3. 결혼 후 어려웠던 점, 4.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 5.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극복경험), 6.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7.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8. 안정적 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9. 더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0. 예비부부, 신혼부부 조언, 11. 기타의견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와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 정책적 제언으로 발표자는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준비로서 배우자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이해, 결혼정보회사의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불법결혼중매업자 근절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우후죽순 난립하는 불법결혼중매업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성사율만 높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부부관계개선 지원으로서 언어장벽개선, 부부교육, 부모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이 ‘자녀양육’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경제적 안정 지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결혼이민자 우선 채용을 언급하였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더불어 성공사례 즉,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요즘 방송매체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방영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다문화가정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또 다른 낙인을 주고 다문화가정 또한 의존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에 대하여

발표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적 차원, 행동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영역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면 다문화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된다. 이에 본 토론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담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첨가한다면 배우자 나라에 대한 문화와 언어 교육, 송금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르치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 갈등 예방 차원의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배우자만이 아니라 시부모와 가족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발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안내서 비치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토론 II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하여

함동현 (캄보디아인 남편 /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1.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47세 함 동현이고, 아내의 국적은 캄보디아, 제 직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 지방 공무원이고, 초혼(처음결혼)이며, 2013년 8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결혼했으며, 저와 집사람의 종교는 불교이고, 2딸과 다음달 3째가 태어납니다.

B 도입 질문

1. 현재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과정은 어떠하십니까?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한국에 먼저 와 잘 살고 있는 친척을 통해서 집사람을 소개 받았습니다.

2.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가족은 아버님, 어머님, 저, 부인, 4살 큰딸, 3살 둘째딸, 그리고, 셋째 딸은 11월 출산예정입니다.

3. 귀하는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2딸이 갈 준비가 되었으면, 어린이집에 대려다주고, 아내 복지관 한국어 수업에 대려다주고, 출근하며, 퇴근할 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DVD도 보고, 책도 읽고, 놀기도 하고, 저녁 밥을 먹은 후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아내가 설기치하면, 제가 잠자리 준비하고, 빨래 널고 계기, 재활용분리수거, 집안청소, 음식물쓰리기 버리기 등 시간이 나면 가급적 같이 하고 있습니다.

C. 결혼과정에서 어려움

1. 결혼 후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사내 못 사내 하는데, 국적, 문화, 생활방식, 언어 등 유사(비슷)한 점이 거의 없는 사람끼리 언어도 안통하고,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뀐 아내는 저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서로 언어소통에서 오는 오해는 다누리콜센터 1366이 나 친척과 3자 통화로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서로 꼭 안고서 한참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2.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자기 자신보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줍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고 와서 어깨, 허리 등이 뭉쳐 있으면, 자기는 만삭인데도 여기 저기 안마해주고, 파스 바르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음아파하며 읊니다. 내가 '왜 울어?' 하고 물으면 당신이 아픈데 내가 도움이 못해서 운다고 합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후회는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등등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의 어려움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가 힘들 때 등등

13년 뒤 내가 60살 정년퇴직(돈을 못 벌면)하면,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이때는 어떻게 살까?

나와 아내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3.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과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님이 한국식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아내는 28년 간 캄보디아에서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쉽게 바뀌지 않아 어머님께서 이 것 저것 고치라고 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차피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식으로 빨리 배우라고 다그쳐서 살도 빠지고, 잠도 폭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제가 집사람 편을 든다고 생각하신 어머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하려거든 너희들끼리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무척 화가 나고 정말 같이 있으면 서로가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틀간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출을 하고,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버님과 전화통화로 어머니의 화가 어느 정도 진정된 걸 알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우리도 돈을 벌어서 우리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아내는 잘 들어주고 성격상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D. 결혼생활을 유지/ 적응하기 위해 했던 노력

1.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응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 초기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언어 소통이 안돼서 생기는 오해는 1366 및 친척을 통한 삼자통화로 해결하고, 매일 밤 잠들기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오늘 뭐했어요?' 라는 내 질문에 아내의 한 단어 대답 '밥', '공부', '청소', 등에서 5년째인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낯선 환경과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병원, 약국, 어린이집, 학교, 구청, 시장, 마트, 아름다운 가게, 공원, 지하철, 버스, 택시, 카드사용법,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법, 물건 고르고 가격비교하기, 주변 환경 등

거의 모든 곳을 같이 함께 다니며, 알려주고, 직접하게하고 우리가 사는 집 주변부터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시켰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캄보디아 관련 책, 인터넷, 먼저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 근처에 사시는 국제결혼회사 사장님 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한국어를 빨리 가르치려고 처음엔 조용히 알려주고,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말하고, 세 번째 더 크게 말하고 하면, 아내는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큰소리로 말을 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내 성격이 급하고, 아내에게 같은 걸 가르쳐 줄 때 계속해서 못 알아 들으니깐 더 많이 빨리 잘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해주고, 이해시켰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힘들고, 서로를 꼭 끌어안으면서 영영 우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문화센터, 복지관, 방문교육 등을 통해서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져서 같이

꼭 끌어 안고 우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눈빛, 행동 등을 통해서 입국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돼지는 한 가지가 다르다.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는 캄보디아 국가대표다. 한국 사람들은 너를 보고 캄보디아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 네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정직하면, 캄보디아 국민 전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가 잘 못하면, 캄보디아 국민 전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난 할 수 있다. 난 잘 할 수 있다.”를 큰소리로 따라 말하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2.귀하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한국인 남편인 내가 혼자 잘해서 한국이 잘 살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과 그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 헌신으로 한국남편인 내가 내 아내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3.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 바꿔 생각하기

한국인 남편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일 때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철없이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 가려고, 부모님께 거짓말해서 돈 받았던지, 아니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아내는 같은 나이에 고국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남편 하나 보고 한국에 왔습니다.

과연 부인이 한국에 올 때 그 나이의 한국남편이라면 지금의 당신 부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당연히 못 했을 거예요.

말도 안통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온 5시간 후 천지가 개벽했으니까요.

4.귀하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했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른 남편들 보다 돈은 덜 벌어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아내와 나, 아이들, 부모님, 우리가족을 위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국제 결혼하러 캄보디아에 가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서류처리, 캄보디아 내무부 인터뷰, 결혼식 사진촬영, 간단한 프놈펜나들이, 가족들과 식사 및 1시간 정도 처갓집 방문 등 너무 빨리 지나간 일정으로 인해서 아내의 가족관계와 친인척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제 소개로 직장동료가 캄보디아로 결혼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 돈을 지불하고 통역을 해줄 분과 같이 처가에서 5일간 같이 생활하고, 나머지 5일은 저 혼자 짧은 영어와 손짓 발짓, 캄보디아어~한국어사전,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장모님 댁에서 10일간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영등포 다문화센터, 하나투어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서울시와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장모님을 한국에 모시고와 2박3일 서울 경기 지역 관광도 하고, 저희가 사는 집에 오셔서 약 5일정도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같이 생활하다가 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딸과 사위 손녀들과 사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셨습니다.

장모님이 한국에 오셨다 가신 후 아내는 더욱더 남편을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노원구청, 노원구보건소, 보건지소,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월계정보문화도서관, 한내도서관, 주민센터, (주)아시안허브 토크쇼 패널참석, 캄보디아 자조모임, 노원구 다문화센터 봉사모임, 청계천, 광장시장, 북 서울 꿈의 숲, 남산, 노원문화회관, 롯데월드, 동네시장, 아름다운가게, 마트, 어린이집, 극장, 공연장, 미술관, 연극관람,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알뜰장터, 아나바다시장, 제가 근무하는 직장 등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과 캄보디아에서 접해보지 못해서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혼자 가기 싫어했던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공부는 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공부나 숙제 책을 빌릴 때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아내의 이런 변화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고, 아직도 제가 실천 못하는 건 제 급한 성격과 빨리 화를 내는 제 자신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건 바로 바로 인정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 개선방안 관련 질문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하여,

1.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언론 등으로부터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통계청,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너무도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다문화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생생 내기용으로 사용됩니다.

한 부처에서 다문화관련 사업을 총괄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결혼하는 과정, 결혼 후 한국생활 적응 및 출산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직업교육, 병역,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 시기에 맞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인정범위에 한국인 남편의 대학원교육은 맞벌이로 인정을 받지만, 다문화가정 아내의 한국어교육은 복지관, 다문화센터에서 출석체크를 해서, 사회통합정보망에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을 주는데도 맞벌이로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보육만 되고, 유치원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위 2곳에 아이를 보내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아이사랑카드로 대략 4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불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양육을 하면, 약 10만원만 지원됩니

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모유수유기 때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차별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너나 나나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태어나기도 전에 등록을 하려고 야단이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아이를 양육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하는 똑같은 돈을 지급한다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 간에 시작부터 출발선이 달라지는 불평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외 취업 연수생을 선발할 때 일정비율이상(약 20%~30%)를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부인의 가족을 우선 선발해서 본국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봉사 및 후원, 자매 결연 할 때도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향부터 시작을 한다면, 동반 성장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부인은 친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초기 입국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기에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못 받아 아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빈곤의 악순환,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별도의 예산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꼭 실천해주세요.

언론은 KBS 러브인 아시아, 이웃집 찰스, 다규멘터리

EBS 다문화 고부열전, 아빠찾아 삼만리, 나는 한국에 산다. 등 언론이 주로 다루는 건 결혼한 후 한국에서의 생활만 다룹니다. 다문화가정 부인의 결혼 전 생활환경 및 문화 교육환경 등 아내의 입장에서 본 한국 등에 관한 내용 및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기본적인 각 나라의 문화 국민성 종교 등 국제결혼에 사용되는 비용이 실제 업자의 수익이지 신부 가족에겐 지급되는 돈이 전혀 없음 등 실질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문제가 많은 국제결혼업자는 퇴출 및 실형을 선고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열어 줘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위해 국제결혼을 하면 돈을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돈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예비 남편 교육 등을 통해서 예비 아내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존중 및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꼭 해주세요.

2.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정이 모범적으로 한국에서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봉사하며,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관련 기관 및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 부터, 예산이 들어도 꼭 해야 할 일 등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F. 마무리 질문

1. 다문화 가정이 될 예비 남편과 아내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결혼은 내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배우자와 아이들 양가 가족 모두의 인생이 바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모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100M를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마세요

짧게 잡아도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이므로 40~50년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항상 감사하며,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말은 평생 서로에게 하면서 사세요.

2. 현재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직업, 힘든 점, 고민 등을

남편은 아내의 생각,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하루 1분만 서로에게 다정한 얼굴과 따듯한 말로 칭찬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인정해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는 아내친구 집 남편이랑 내 남편을

남편은 다른 다문화가정의 부인과 내 아내를

3. 덧붙이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5년, 만으로 4년 동안 나 하나 믿고 고단한 시집살이와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로 인자한 엄마로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가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다 아는 것도 적고 결혼생활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환경과 지금 사는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의지와 용기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서로를 인정 하세요.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듯이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세요. 귀한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제3회 연구계획서
(사)글로벌디아코니아

1. 심층면담 인터뷰 질문지

분류	문항내용
시작질문	1.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귀하의 성함과 나이, 아내의 국적, 직업, 결혼(초혼, 재혼), 결혼기간, 종교, 아이 유무 등 자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도입질문	1. 현재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과정은 어떠하십니까? 2.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3. 귀하는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결혼과정에서 어려움	1. 결혼 후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적 차이, 시댁과의 갈등, 식습관, 부부간의 소통/자녀와의 소통 등) 2.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경험과, 후회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결혼 후 가장 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경험과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생활을 유지/적응하기 위해 했던 노력	1.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응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귀하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했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개선방안 관련 질문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좋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하여, 1.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언론 등으로부터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2.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1. 다문화 가정이 될 예비 남편과 아내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현재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 덧붙이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가능하면 사전 조사>

번호	구분	나이	아내 출신국 (학력)	결혼 기간	결혼 경력	자녀수	본인 직업	아내 직업	아내 한국어 구사능력
1	참여자 A	예) 55	베트남 (고졸)	8년	이혼후 재혼	3명	자영업	공장 직원	상
2	참여자 B								
3	참여자 C								
4	참여자 D								
5	참여자 E								
6	참여자 F								
7	참여자 G								

3. 연구 추진일정

번호	연구내용	기간	연구추진 일정 (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1	연구 참여자(7case) interview (9월 중)			■	■	■											
2	interview 전사본 작성 (녹취플기) (9월 초 ~ 10월 중순)					■	■	■	■								
3	전사본 분석 (10월 중순 ~ 10월 말)						■	■	■								
4	연구보고서 작성 (10월 중순 ~ 11월 초)								■	■	■						
5	다문화 포럼														■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I. 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는...

본 법인은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인 봉사과 섬김, 나눔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2013년 설립되었고, 2013년 5월 9일(목)에 개원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민간 차원, 특별히 기독교교회 차원의 봉사과 섬김, 나눔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방안 모색, 실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조직으로는 다문화사업부, 중독사업부, 연구사업부를 두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1동 1071-2, 상림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며, 6층(600여평)건물은 모두 다문화사업, 중독사업, 연구사업 등 센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II. 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를 설립한 이사회는...

본 법인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사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서무이사 김종생목사(온양제일교회/전 한국교회봉사 사무총장)께서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오성목사(NCCCK 전 총무), 김경원목사(서현교회), 김동배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김성영교수(전 성결대총장, 백석대 석좌교수), 손인용목사(덕수교회 원로), 이원희장로(C Channel 부사장), 이재창목사(수원순복음교회), 장영일교수(전 장신대총장), 정성진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한태수목사(은평성결교회), 한현수총장(숭실대학교), 김행선이사(주,로젠스틱대표이사), 이향천이사(주, HK 대표이사), 이필산목사(청운교회)께서 이사로, 김종순대표이사(김종순 세무사 대표이사)께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III. 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의 주요 사업은....

1. 다문화사업

1) 결혼이주여성 자립쉼터 “유니게의 집” 운영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쉼터 “유니게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계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나눔과 봉사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유니게의 집”을 설립하였고, 가정폭력, 시택과의 갈등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한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거와 일부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사

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상담, 취업알선,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가정(중국 3가정, 베트남 3가정) 11명의 식구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으며, 2013년3월에 개원하여 자립 및 재혼, 본국으로 귀국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여성 12가정이 유니게의 집을 거쳐나갔다. 퇴한한 이후에도 유니게의 집을 친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명절이나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친정엄마맺기 프로그램은 유니게의 집 입주자들이 한국에서 본인들을 위해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친정이 있는 것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가나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가나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들과 매주 토요일 학습지도, 예능교실(피아노 및 오카리나), 독서지도, 또래집단과의 놀이문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엄마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은 다문화부모와 자녀들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인덕대학교, 신현고등학교 샤프란 봉사동아리,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으로 있다

3)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로 구성된 “필로새소리단”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필로새소리단”을 2015년 1월에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아동들은 감수성을 높이고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글 습득과 정서적인 안정, 공연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2015년 4월 “제2회 유니게의 노래” 공연과 “노원구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음악으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소리사랑합창단(김미례회장)”의 지원으로 전문지휘자(최재복 지휘자)와 반주자(오수현)의 봉사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 콘서트와 다수의 교회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4)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한 “캄보디아 모국방문 및 도서관 지원사업”은 많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국민일보, 기독교보, 기독교 타임즈, 씨체널 방송-다큐 2부로 방송). 실무자(유니게의 집 소장)와 언론사가 동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하여 오랫동안 본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오산시 거주) 2가정 6명(남편 및 자녀 동행)을 캄보디아 친정을 방문하게 했으며, 특별히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졸업한 초등학교 2곳에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책장과 도서 600권을 두 학교에 각각

지원하여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앞으로 두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하였다.

5) 잠재이혼위기가정 가족강화 프로그램

잠재적으로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제주도여행으로 이혼위기를 극복하는 가족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가정(31명), 2014년 7가정(22명)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관광하고, 웃음치료사 및 이혼위기를 극복한 강사를 초빙하여 가족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고, 다른 다문화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는 프로그램과 배우자의 마음 알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한 다문화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제주도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잠재 위기 다문화가족들에게 상담, 자녀교육, 필로새소리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6)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생활교육 “살림 아카데미”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가족관계, 기본적인 법률지식 교육, 재활용분리 수거, 세탁기 이용법, 냉장고 정리법,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부부성교육, 한국 음식배우기, 다도교실에서는 다도 및 예절교육, 한복 입는 법 등과 아산 외암리민속마을을 여행하여 전통적인 한국사회를 경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7) (고) 호티리(윤민주 31세) 베트남가적 돕기 자선음악회

1. 공연취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고) 호티리(윤민주)는 2015년 12월 7일 한국인 남편의 의해 딸 조민아(당시 6세)와 함께 구로 오금교 부근에서 살해당했으며, 살해 당시 고인은 임신 4개월 태중의 아이도 피해자 되었다
전 남편 조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호티리는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다문화여성 쉼터 “유니게의 집”에서 5개월여 간 생활한 인연이 있는 여성으로 “유니게의 집”을 한국 친정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고) 호티리 베트남 친정 상황

베트남 친정에는 80세의 친정어머니와 가족들이 딸과 손주 죽음의 충격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매일 눈물로 살고 있음. 연로한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매우 나빠져 최악의 상태이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고) 호티리모녀 1주기 추모 사업

2016년 11월에 (고) 호티리 1주기 추모식에 김종생이사(운양제일교회) 및 직원이 참석하여 가족들을 위로하였고 2016년 4월부터 3년간 약정으로 매월 300\$씩(3년/10,800\$) 베트남 친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김종생목사님을 비롯하여 마을 면장, 초등학교 교장, 학부모대표 등 마을 유지 분들과 (고)호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마을 유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의 내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1주기 추모식 비용 지원
- (고) 호티리 모교 “쭈언 럽 초등학교”에 놀이터설치 및 놀이기구 지원, 화장실 신축 및 증축, 자전거 거치대 설치(520대 수용)
- 쭈언 럽 마을화관에 마을주민과 학생, 이웃마을 주민까지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교실 설치 및 컴퓨터 구입 등 기자재 지원



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고 호티리(윤민주) 1주기 추모사업 지원

5월 29일~6월1일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이사장 김삼환목사) 서무이사 김중생목사(온양제일교회), 사무총장 김성태장로(명성교회)는 결혼이주여성 고 호티리(한국명:윤민주)씨의 모교인 베트남 쑤언림초등학교 시설 준공식에 참석했다. 1985년생인 호티리씨는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으로 2013년 이혼 후, 한국인 전남편에 의해 6세 딸과 함께 2015년 12월에 서울 오금교 부근에서 피살된 여성이다. 호티리씨는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에서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립쉼터인 “유니게의 집”에서 5개월여 생활한 인연이 있다.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는 호티리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연로한 친정어머니를 비롯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그가 다녔던 베트남 쑤언림초등학교에 실외 놀이터 설치, 현대실 화장실 개조, 학생들 자전거보관소 준공식과 마을회관에 지역주민들의 교육용으로 컴퓨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쑤언림초등학교 준공식에는 학생, 군청, 교육청, 경찰서, 면사무소 직원, 학부모대표, 교사, 고 호티리씨 유가족 등 550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의 환영 축하 행사로 베트남 전통춤과 노래의 시작으로 쑤언림면 당비서의 감사인사말씀, 김중생서무이사께서 축하의 말씀이 하셨다., 쑤언림면장과 초등학교장은 본 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중생목사님, 김성태장로님께서 학생들에게는 일일이 T셔츠, 음료수, 빵, 과자 등을 선물하였고, 내빈과 가족들에게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내빈, 학생대표, 호티리(윤민주) 가족들이 시설 준공식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였으며, 전쟁 등의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앞으로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앞으로 본 센터는 쑤언림지역에 계속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일행들은 하노이 부근 빈푹시 희망고아원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인 샛별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가난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만불의 예산으로 “명성암소은행”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고 호티리(윤민주)의 막내오빠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대여하였다. 암소은행사업은 송아지를 대여하고 2~3년 후에 되돌려받는 사업이다. 쑤언림면장과 지역주민들의 협조아래 “명성암소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1차, 2차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암소은행”은 1차로 (고)호티리의 오빠 가정 등 20가정에 송아지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 2차로 20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 기 타

도서벽지 다문화 어린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주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서울 나들이” 프로그램(전남지역), 교회와 다문화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실 무자네트워크, 다문화 관련 포럼 및 자료집 발간, 상담, 교육사업, 취업알선, 한국 친정엄마가족 맺기 등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2. 중독사업

우리 사회에 알코올, 약물과 같은 물질중독, 도박, 컴퓨터게임과 같이 특정 행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본 법인 중독사업부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 찾는 사업을 하고 있다.

3. 연구사업

한국교회가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심김과 나눔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섬김, 봉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